

2014년 서울시 시험은 문제가 공개된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시험이다. 전통적으로 서울시 출제 유형의 핵심은 국문학사 암기 문제와 국문학 작품의 독해 문제였다. 그런데 2014년 문제는 국어생활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고, 비문학은 1문제가 출제되었다. **문학**은 4문제로 작년 서울시 시험과 같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이 서울시 시험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국문학사 암기 유형이 많아서인데 이번에는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어서 그다지 까다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험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문법 분야는 형태론에서 품사를 묻는 문제와, 문장론에서 문장의 구조와 호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의미론에서 의미 변화의 양상과 중의적 의미 파악하기가 출제되어 모두 5문제가 출제되었다. 음운론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문규정은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문제가 출제되었고,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는데, 외래어 표기는 규정의 원리를 파악하여 어휘와 연결하여 푸는 문제였다. 로마자 표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 분야는 한자어의 표기, 한자어의 의미, 한자성어, 그리고 고유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모두 5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문학 분야는 생략된 정보의 추리 유형 한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서울시 시험에서 비문학 독해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국가직 시험의 유형처럼 공부해 두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학 분야는 현대시의 이해, 수사법,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기존의 서울시 시험 경향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국문학사 암기형 문제에 대한 학습 대책도 세워 두어야 한다.

1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

- ① 이순(耳順)
- ② 종심(從心)
- ③ 지천명(知天命)
- ④ 불혹(不惑)
- ⑤ 이립(而立)

②

일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은 ‘종심(從心)’이다.

- ① 이순(耳順): 예순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③ 지천명(知天命): 쉰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④ 불혹(不惑):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⑤ 이립(而立):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2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③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모름지기’는 ‘반드시’라는 뜻을 지니는 부사로 문장 성분 쓰일 때는 ‘~해야 한다’와 호응한다.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가 옳은 문장이다.

3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다리(脚)’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에도 쓰인다.
- ② ‘짐승’은 ‘衆生’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 ③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
- ④ ‘어여쁘다’는 ‘조그맣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의미이다.
- ⑤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다.

④

‘어여쁘다’는 중세국어에서 ‘불쌍하다(憐)’라는 뜻을 가졌다. 그런데 근대 국어에서 ‘불쌍하다,’와 ‘예쁘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아름답다(美麗)’의 의미로 쓰인다. ‘조그맣다’의 의미로 쓰인 적은 없다.

4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두루 사시(四時)를 두고 자연히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적은 봄과 여름이요,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萬山)에 녹엽(綠葉)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 이양하, <신록예찬> 중에서

- ① 두루
- ② 가장
- ③ 풍성히
- ④ 아낌없이
- ⑤ 아름답게

⑤

‘아름답게’는 ‘아름답다’의 활용형으로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 ① ‘두루’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의 부사이다.
- ②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라는 뜻의 부사이다.
- ③ ‘풍성히’는 ‘넉넉하고 많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 ④ ‘아낌없이’는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5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
-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③

③은 ‘봄이 되다’와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다’의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 ②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④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⑤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모두 ‘안은 문장’이다.

6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

①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는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콩트, 떠블, 게임, 뻬에로’로 쓰면 안 되는 어휘들이다. ‘콩트(conté)’는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소설이고, ‘더블(double)’은 어떠한 수량의 배(倍)를 이르는 말이며, ‘게임(game)’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고, ‘피에로(pierrot)’ 프랑스의 무언극에 나오는 어릿광대를 이르는 말이다.

- ② 제3항 -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③ 제2항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④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⑤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7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

⑤

중의적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말하는데,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 ⑤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어휘적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복부·선박·과일' 중 하나로 해석된다. ①, ②, ③, ④는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난 문장이다.

8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떡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④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②

'양은 그릇에 떡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 맞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쓰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사법의 예로는 ②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가 있다. ①은 대유법, ③은 점층법과 대구법, ④는 도치법 ⑤는 은유법이 쓰인 예이다.

9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20%를 사용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이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 됐다.

-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 ② 어른들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④ 인간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로 제시문의 핵심정보는 ‘두뇌 능력 활용’이다. 조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논지에서 벗어난 정보이므로 이 글 다음에 이어질 수 없다.

- ① 두뇌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소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두뇌 능력 활용’과 관계가 있다.
- ②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뇌 능력 활용’과 관계가 있다.
- ③ 학생의 재능 발휘는 ‘두뇌 능력 활용’과 관계가 있다.
- ④ 인간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두뇌 능력 활용’과 관계가 있다.

10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
- 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
-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
- 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곳 벌리었다.
- ⑤ 겹쩨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

④

‘방곳’은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이르는 말로 ‘방곳’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① ‘입학율(×)’이 아니고 ‘입학률(○)’이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일 때 ‘열, 율’로 적으므로 ‘입학률’은 원래대로 ‘률’로 적어야 한다.

② ‘어린이란(×)’이 아니고 ‘어린이난(○)’이다. 한자어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③ ‘채하다(x)’가 아니고 ‘채하다(○)’이다. ‘채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은 채하다’, ‘-는 채하다’ 구성으로 쓰이며, ‘척하다’로 쓸 수도 있다.

⑤ ‘꺽질채(x)’가 아니고 ‘꺽질째(○)’이다. ‘째’는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며, ‘꺽질’을 그대로 먹는 것의 의미이므로 ‘째’를 쓰는 것이 바르다.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11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잇몸, 바닷가, 뒷일, 전셋집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예는 없다.

① 바닷가[바다까/바단까]: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② 잇몸[인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뒷일[된 : 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④ 전셋집(傳貰-)[전세쩍/전센쩍]: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는 띄어쓰기 부호)

① 옷∨한벌∨살∨돈이∨없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뒀다.

③ 강아지가∨집을∨나간∨지∨사흘∨만에∨돌아왔다.

④ 이∨나무는∨10∨미터가∨넘는다.

⑤ 합격했다는 V 말에 V 뿔듯이 V 기뻐하였다.

③

‘지’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옷 V 한 V 벌’로 쓴다.

② ‘대로’가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것대로’처럼 붙여 써야 한다.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미터’는 ‘10 미터’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쓸 때에는 ‘10미터’와 같이 붙여 적을 수도 있다. 붙여 쓰는 것과 띄어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⑤ ‘듯이’는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이다. ‘뿔 V 듯이’처럼 띄어 써야 한다.

13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궁도런님 :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은 잘 모르는 사람
- ② 윤뚝뚝이 :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 ③ 책상물림 :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 ④ 두루치기 :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 ⑤ 대갈마치 :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②

‘윤뚝뚝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4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있는 것은?

- ① 눈대중 - 눈어림 - 눈짐작
- ② 보통내기 - 여간내기 - 예사내기
- ③ 멀찌감치 - 멀찌가니 - 멀찍이
- ④ 녇쿨 - 덩굴 - 덩쿨
- ⑤ 되우 - 뉘통 - 되게

④

‘녕쿨’과 ‘덩굴’은 복수 표준어이다. ‘덩쿨’은 잘못된 표기이다.

15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기 옳긴 것은?

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 ① 不淨 - 不正 - 不正 - 否定
- ② 不正 - 不淨 - 不定 - 否定
- ③ 不定 - 不淨 - 否定 - 不定
- ④ 不貞 - 否定 - 不淨 - 不定
- ⑤ 不貞 - 不定 - 否定 - 不淨

②

부정의 뜻을 고려하여 한자어 순서대로 배열하면 ‘不正-不淨-不定-否定’이다.

부정(不正):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부정(不淨): 사람이 죽는 따위의 불길한 일.

부정(不定): 방정식이나 작도(作圖) 문제에서 그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일.

부정(否定):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16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桑麻之交
- ② 刎頸之交
- ③ 膠漆之交
- ④ 金蘭之交
- ⑤ 水魚之交

①

‘상마지교(桑麻之交)’는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친한 친구의 사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③ 교칠지교(膠漆之交):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

④ 금란지교(金蘭之交):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⑤ 수어지교(水魚之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다음 중 창작 군담소설(일명 영웅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
-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 ④ 시·공간적 배경은 16~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④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의 한 유형으로, <임진록>과 같이 실재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과 <유충렬전>, <조웅전>과 같이 허구적 전쟁을 소재로 한 창작 군담 소설이 있다. 군담소설의 배경은 조선인 경우도 있지만 중국이 배경인 소설이 대부분이다.

18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

- ① 김동리,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
-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
-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
- ④ 전원파, 청록파,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
-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KAPF)가 해체되었다.

①

동반자 작가는 공산주의 혁명운동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혁명운동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학경향을 가진 작가를 이르는 말이다. 김유정, 김동리 둘 다 동반자 작가가 아니다. ‘김유정’은 1930년대 활약한 작가로 ‘구인회’에 참가하였으며, 농촌과 도시의 토속적 인간상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 내었다. 작품에 <봄봄>, <동백꽃>, <따라지> 따위가 있다. ‘김동리’는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인 순수문학 작가이다.

19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①

청노루는 2행을 1연으로 한 5연의 자유시로, 청노루를 중심으로 봄의 정취를 회화적으로 그려진 서정시이다. 특히 '청운사', '느릅나무', '청노루', '눈', '눈 속의 구름'으로 소재가 이어지는데, 이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방식으로 볼 수 있다.

2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 ① 가상(假象) 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② 가시(可示)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遍歷)이 드러나 있다.
- ④ 그 이야기는 과장(誇長) 없는 사실이다.
- ⑤ 삶에 대한 통찰(通察)이 묻어나는 말씀이다.

③

'편력(遍歷)'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뜻으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인 한자어이다.

- ① 가상(假象):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② 가시(可視): 눈으로 볼 수 있는. 또는 그런 것.
- ④ 과장(誇張):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러서 나타냄.
- ⑤ 통찰(洞察):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